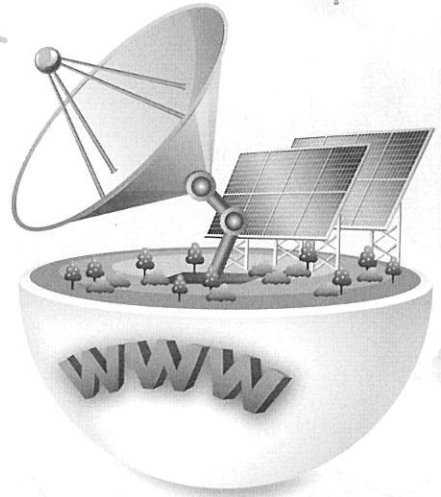


# 지구촌 양계 News



## 미국

육고기, 프라이팬에 구워먹으면 전립선암 발병률 증가

프라이팬에 붉은색 고기를 조리하는 방식이 전립선암 위험을 40% 가량 높인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지난 8월 16일(현지시간) 미국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USC) 연구팀과 캘리포니아 암 예방 연구소는 적색육과 가금류가 조리과정에서 어떻게 전립선암 위험을 높이는지를 분석한 연구 논문을 발암물질 저널에 발표했다.

이전의 연구들은 식생활에서 적색육이 차지하는 비중과 전립선암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데 주목했다면 이번 연구는 붉은 고기가 고열에서 조리될 때 형성되는 잠재적 발암 물질에 초점을 맞췄다.

연구진은 샌프란시스코 만 지역과 로스앤젤레스 지역에 거주하는 다민족 피실험자 2000명을 대상으로 가금류(닭·오리 등 가축으로 기르는 조류)와 가공육 등 육류 섭취량과 섭취 방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중 1000명은 전립선암 환자였다.

설문조사에는 조리 방법에 관한 정보(프라이팬, 오븐구이, 석쇠구이)와 익힌 정도를 나타내는 컬러 사진이 함께 제공됐다.

그 결과 1주일에 1.5인분 이상 프라이팬에 고기를 구워 먹는 사람은 전립선암 위험도가 30% 더 높았다.

고온에서 조리된 고기를 2.5인분 이상 먹는 사람들은 전립선암을 가질 확률이 40% 이상이었다.

고기 종류와 상관없이 프라이팬에 굽는 방식은 전립선암 위험도를 높였으며 프라이팬에

생선을 구울 때도 전립선암 위험도가 증가했다.

오븐에 가금류를 조리해 먹는 섭취법은 전립선암 위험도가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진은 프라이팬으로 굽는 방식이 전립선암의 위험도를 높이는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했으나 적색육과 가금류를 조리하는 동안 발생하는 발암물질인 HCAs, PAHs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HCAs는 당류와 아미노산이 고온에서 장시간 조리될 때 발생하며 DNA를 해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PAHs는 고기를 석쇠에 굽거나 훈제할 때 발생한다. 고기에서 나온 지방이 곧바로 불꽃에 떨어질 때 발생하는 연기가 고기에 PAHs를 함유시키는 것이다.

한편 특정 타입의 적색육이나 햄버거는 히스패닉 남성의 전립선암 위험 상승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스틴 교수는 이에 대해 “햄버거에서 발견되는 각종 발암물질의 다양한 농도 때문으로 보인다”며 “햄버거는 스테이크보다 내외부 온도가 더 빨리 올라간다”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는 전립선암 협회와 미국 암 연구 단체의 지원을 받아 진행됐다.

- 매일경제

## 가뭄에 곡물 이어 소-닭 농장도 '올상'

극심한 가뭄에 곡물 가격이 급등한 데 이어 소와 닭 등 가축을 기르는 농장과 유제품 생산

업체들도 올상을 짓고 있다.

가뭄으로 인해 옥수수과 콩은 물론이고 가축의 사료로 이용되는 건초까지 생산에 극심한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건초의 경우 선물 거래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가격 상승 폭을 가늠하기 쉽지 않다.

하지만 닭이나 소 농장 운영자들은 건초 비용이 지난해의 2~3배 수준으로 높아졌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대체 사료를 찾거나 가축을 조기에 팔아치우는 농장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8월 20일(현지시간) 미국 농무부에 따르면 건초 재배지의 약 63%가 가뭄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올해 건초 재배가 당초 업계의 전망치인 1억2000만 톤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가뭄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축산농가에 전가되고 있다.

USDA의 조 글로버 이코노미스트는 “사료 비용을 감당하지 못한 농가들이 털 자란 가축을 시장에 내다팔고 있다”며 “기준에 미달하는 울며겨자 먹기 식으로 낮은 이익률에 처분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 뉴욕=뉴스핀

## 일본

### 일본산 닭고기 시세 저조

일본산 닭고기의 시세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식품산업신문은 일일시세를 봤을 때 올해 가장 높았던 1월의 다리살 616엔, 가슴살 203엔에 비해 7월 평균가격은 다리살 539엔, 가슴살 174엔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다리살에서 77엔, 가슴살에서 29엔 낮아진 수치로, 이는 최근에 보이지 않았던 현상이라고 한다.

이에 8월에 들어서도 시세저하가 지속, 특히 오봉 이후에 급격하게 진행되어 27일에는 다리살이 512엔으로 떨어지고 가슴살은 약간 회복되어 181엔이 되었다. 28일에는 519엔, 184엔으로 약간 올랐으나 다리살은 510엔으로 낮은 가격이 지속되었다.

시세저조의 요인으로는 판매점에서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는 점, 생산량이 판매량을 웃돌아 잉여감이 강한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업계로서도 시세가 저조한 가운데 재고를 줄이려는 생각이 강해 덤핑판매도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 일본식품산업신문

### 7월 닭고기 수입수량, 브라질산 1위

일본식육출입협회는 지난 8월 20일 닭고기 수입동향검토회를 개최, 7월 닭고기 수입량 예측을 4만 6,300톤(전년동기대비 110.4%)으로 보았다.

현지에서 적출된 수량, 검역수량을 베이스로 예측을 행한 것으로 국가별로는 브라질 4만 3,000톤(117.8%), 미국 2,200톤(65.4%), 그 외 국가가 800톤(51.0%)이다.

또한 8월 닭고기 수입수량은 7월 예측수량

보다도 '약간 감소', 9월은 8월 예측수량보다도 '대폭 감소'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동 협회에서는 "여전히 높은 재고율과 일본 국내의 닭고기 생산이 순조롭기 때문에 수입 수량은 일시적인 증가가 있을지 모르나 기본적으로는 전년도를 밑돌 것으로 보여진다"고 보고있다.

- 일본식품산업신문

## 베트남

### AI, 중동부 지역도 발병

베트남 북부지역 등에 최근 조류인플루엔자(AI) 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중동부 팜응아이성에서도 감염사례가 보고되는 등 AI가 급속 확산하고 있다.

지난 3일 베트남 신문에 따르면 최근 팜응아이성 5개 지역에서 AI가 발생, 약 5만8천마리의 닭과 오리 등 가금류가 폐사되거나 살처분됐다.

팜응아이성은 최근 AI 의심 증상이 보고된 일부 지역에서 채취한 80개 샘플을 검역당국에 보내 정밀조사를 의뢰한 결과 모두 AI 바이러스 H5N1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성 당국은 보건부 AI예방지침에 따라 발병지역을 중심으로 가금류 운반과 거래, 도살 행위 등을 전면 금지하고 소독 등 방역작업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당국은 추가 감염사례 발견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관련 기관들에 가금류 반출



입 등을 엄격히 단속해줄 것을 지시했다.

농촌지역개발부는 팡응아이 지역의 AI 확산을 막기 위해 현지에 100만마리 분량의 AI 백신을 긴급 지원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이에 앞서 하띤과 하이퐁 등지에서 지난 8월 중순 AI가 발병, 14만마리 이상의 가금류가 살처분됐다.

당국은 접경지역에서의 가금류 불법 반입으로 AI가 확산하고 있다며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하노이=연합뉴스

## 멕시코

### 달걀값 급등, AI 발병 탓

멕시코에서 달걀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이같은 이유로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발병 탓으로 풀이된다. 세계적인 곡물가격 인상에 AI까지 겹치며 멕시코의 물가 급상승이 우려된다.

AP통신은 지난 6월 멕시코 미초아칸과 할리스코 주(州) 등 서부지역에서 AI가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살처분된 닭이 1,100만 마리에 달한다고 지난 8월 26일 보도했다. 미초아칸은 멕시코 전체 달걀 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곳이다.


멕시코의 지역별 달걀값은 1kg 당 월초 대비 평균 두 배 가까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1kg 당 20페소(1710원) 안팎이던 달걀값은 한달도 채 안 돼 30페소(2570원) 대로 가파르게 상승

했다.

AP통신은 “북부 일부 지역에선 이 가격의 두 배에 팔리고 있다”고 전했다.

멕시코 서민층은 달걀값 폭등에 큰 타격을 입고 있다. 멕시코의 1인당 달걀 소비량은 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미국의 3.5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멕시코에서는 육류 대신 계란으로 영양보충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달걀 사재기도 극성을 부리자 멕시코 정부는 긴급 대책을 내놨다. 멕시코 정부는 계란 구입을 위한 보조금 2억2700만 달러를 풀었고 사재기를 막기 위해 지역별로 조사관을 파견했다.

펠리페 칼데론 대통령은 “달걀을 대규모로 수입하기 시작했으며 조류인플루엔자로 피해를 본 농가에 300만 마리의 암탉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 한국경제

을 추석 선물세트는  
맛 좋고, 영양 만점인  
‘닭고기 선물세트’로  
결정하세요!